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Smart-Device Addiction Levels, and Parenting Style, Parenting Stress, and the Effects of Sensation Seeking Trait to Mothers' Smart-Device Addiction*

Lee, Seung-ha
(Yeungnam University)
Bae, Jung-ho[1)]
(Munkyung College)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smart-device addiction levels and parenting styles, parenting stress, and the effects of sensation seeking trait to mothers' smart-device addiction. 291 mothers in Kyung-gi province responded to the survey. The results showed that increased levels of mothers' smart-device addiction levels showed lower warmth- and autonomy parenting style and higher rejection-parenting style. Sensation seeking trait positively predicted mothers' smart-device addict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potential risks of mothers' smart-device addiction in terms of providing negative parenting environment to children. Also, the high susceptibility of the mothers to boredom in daily routines tended to show high smart-device addiction. Thus, an intervention program to prevent mothers' smart-device addiction and mothers' personality as well as parenting variables should be considered.

Keywords: mothers' smart-device addiction, parenting style, parenting stress, sensational seeking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2014 Research fund of Yeungnam University

1) Corresponding Author: inyunsul@naver.com

교육연구논총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2016. Vol. 37, No. 1. pp.299~323.
http://dx.doi.org/10.18612/cnujes.2016.37.1.299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중독수준과 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 및 감각추구와의 관계*

이승하(영남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배정호(문경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1)

요 약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중독수준에 따른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와, 감각추구 성향이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중독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291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중독수준이 높은 그룹에서 애정적, 자율적 양육태도가 낮았으며, 거부적 양육태도는 높게 나타났다. 감각추구성향은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중독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본 연구는 어머니 스마트기기 중독과, 부정적인 양육환경과의 관련성을 보여주어, 스마트기기 중독이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암시한다. 더불어, 일상의 권태로움을 참지 못하거나, 사회관습적으로 억제된 규율을 벗어나고자 하는 어머니의 경우 스마트 기기에 빠져들기 쉽다는 점을 보여주어,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육관련 변인 뿐 아니라, 감각추구와 같은 어머니의 개인적인 성향 또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어머니 스마트기기 중독, 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 감각추구

Ⅰ. 서 론

몇 해 전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젊은 부부가, 게임에 몰입한 나머지 자신의 아기를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조선일보, 2010). 그 이후에도 인터넷 혹은 온라인 게임중독 등과 같은 미디어 중독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가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 본 논문은 2014 영남대학교 교비연구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1) 교신저자: inyunsul@naver.com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하여, 자녀 양육을 등한시하고, 심지어는 자녀에게 극단적인 학대행위를 가하는 부모들도 나타나고 있다(국민일보, 2014). 인터넷 혹은 휴대전화 중독정도가 높으면 대인관계를 맺는 기술이 부족하고, 의사소통이 부정적이거나, 사회성 발달이 낮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것은 가상세계에서의 관계에 집중한 나머지 현실 속 대인관계에 무감각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병년, 2013). 인터넷 중독에 비하여 아직 많은 연구가 행해지지는 않았지만, 최근 몇몇 연구가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높은 집단과 대인관계와의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높은 집단은 대인관계가 좋지 않았으며, 사회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 중독이 개인의 사회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조수진, 2012; 황경혜, 유양숙, 조옥희, 2012).

스마트폰은 기존의 인터넷 중독, 이동전화 중독을 모두 아우르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2015년 5월 통계에 따르면 사용자의 14%가 중독의 위험에 처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5). 현재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는 없다. 대체로, 인터넷 중독과 이동전화 중독의 개념을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스마트폰이 휴대폰의 기능과 PC의 인터넷의 기능이 결합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Griffiths(1999)는 휴대폰 중독이란 “휴대폰에 대한 의존행동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 휴대폰 사용에 내성이 생겨 사용량이 늘어나고,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과 초조를 경험하는 강박경향이 있어서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문제를 경험하는 정도가 높은 것” 이라고 개념화하였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3). 장혜진(2002)은 이동전화중독의 개념을 Young(1998)의 인터넷 중독 측정도구와 Goldberg(1996)의 인터넷 중독진단 기준을 기초로 하여, 의존, 내성, 초조와 불안, 금단의 증상으로 보았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의 개념을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성’, ‘금단증상’, ‘내성’의 4요인으로 구인하였다. ‘일상생활장애’란 이동전화 사용으로 인해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며,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이것의 사용이 생활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한다. ‘가상세계지향성’이란 현실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더 즐겁거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간 관계맺기를 더 즐기고 좋아하는 상태를 말한다. ‘금단증상’은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스마트폰이 옆에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함을 느끼는 현상, ‘내성’은 이동전화 사용에 있어서 더 많은 사용을 해야 만족을 느끼게 되는 증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정의를 종합하여 볼 때, 스마트폰 중독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줄 정도로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스스로 제어하기 힘든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에 중독된 성인, 그 중에서도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스마트폰 중독수준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 현은자, 조메리명희, 조경선, 김태영(2013)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수준과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중독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잠재적 위험사용자군에 속한 어머니들은 일반사용자군에 속한 어머니들보다 양육효능감은 낮고, 양육스트레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적 위험사용자군에 속한 어머니들은 스마트폰 사용이 가장 낮은 어머니 그룹에 비교하여 훈육, 놀이, 애정, 일상체계 조직, 교육 등 양육 효능감의 모든 하위범주에서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양육스트레스는 양육자가 부모역할 수행과정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로써 양육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Abidin, 1990), 자녀와의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움이 반복되어, 부모에게 성가심이나 짜증,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김미숙, 200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혹은 사회적 능력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김대용, 정규석, 2015; 이인학, 최성열, 송희원, 2013).

스마트폰 중독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이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보이는 것은 스마트폰에 몰입하게 되어, 자녀양육을 성가시거나, 귀찮고 짜증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양육스트레스가 많은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갖게 되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자녀에게 강압적이고 거부적인 양육방식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에게 건강하지 못한 양육환경을 제공하게 된다(김미숙·문혁준, 2005). 만약 스마트폰 중독이 양육스트레스 높이고, 이것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양육으로 이어진다면, 부모의 스마트폰 중독은 자녀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라 볼 수 있다. 더구나, 부모의 스마트폰 중독은 자녀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김민석과 문혁준(2015)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높을수록, 어머니 역할지능이 낮을수록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수준을 더 높게 예측하여, 어머니와 영유아기 자녀간의 스마트폰 중독 관련을 보여주었다. 비슷하게 나용선(2013)의 연구에서도 부모 혹은 양육자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보여준다.

중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의 가정환경이나 사회환경 내지는 개인의 심리학적 성격이나 욕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같은 환경에 처해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타고난 생물학적인 특성에 따라 중독이 일어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변인이 감각추구 성향(sensational seeking)이다(노웅철, 이선로, 2005). 감각추구성향은 다양하고 신기하며 새롭고 복잡한 경험에 대한 욕구를 느끼고 그러한 경험 혹은 감각을 추구하기 위하여 신체적, 사회적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의지로 정의된다(Zuckerman, 1979). 감각추구성향은 공격성, 성행위, 스카이다이빙, 번지점프 등 자극적인 활동이나 스포츠에 참여하려는 경향성을 설명해줄 뿐만 아니라, 컴퓨터 중독, 게임중독, 최근에는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등 미디어 중독을 설명해주는 개인내적 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나재은, 2014; 정경호, 2014; 정지혜, 박중규, 2011;

Zuckerman, 1979). Zuckerman(1979)은 감각추구성향의 네 가지 요인을 '스릴과 모험추구', '경험추구', '탈억제', '권태에 대한 민감성'으로 구분하였다. '스릴과 모험추구'(thrill and adventure seeking)는 일상적이지 않으며, 일반적인 위험수준을 넘어서는 활동이나 스포츠에 참여하여 감각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 '경험추구'(experience seeking)는 미술, 음악, 약물 혹은 사회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삶의 방식을 통해 새로운 감각적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의미하며, '탈억제'(disinhibition)는 파티, 음주, 성적인 활동을 통해 흥분되는 감각적 경험을 추구하는 성향, '권태에 대한 민감성'(boredom susceptibility)은 비슷한 자극이 반복되는 상황이나, 예측가능한 일상을 견딜 수 없어서 이러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성향을 뜻한다. Zuckerman(2002)은 이러한 성향은 생물학적 혹은 유전적인 소인과 높은 관계가 있으며 자라온 환경 또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국내연구에서도 감각추구성향이 높을수록 인터넷에 중독되는 경향이 있으며(양돈규, 2000), 청소년이 휴대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데 영향을 주었다(정지혜, 박중규, 2011). 인터넷에 의존적인 청소년들은 '탈억제'성향과 감각추구 전체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탈억제'는 인터넷의존을 예측하였다(Lin & Tsai, 2002). 또한, 스마트폰 중독과 감각추구성향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며, 감각추구 성향은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영향을 주는 중요 변인으로 나타났다(김연정, 2014; 이정아, 2014; 정경호, 2014). 그런데, 선행연구들은 청소년(김연정, 2014; 정경호, 2014) 혹은 대학생(나재은, 2014; 신연섭, 2012; 이정아, 2014)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부모에 초점을 두어 스마트폰과 감각추구 성향간의 관계를 연구한 경우는 거의 없다.

부모가 스마트폰에 중독될 경우 자녀양육에 소홀해 질 수 있고, 이는 자녀가 정서·행동적 문제를 갖게 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하여 자녀에게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지 않고, 식사를 주지 않거나 방치 혹은 학대하는 뉴스가 연일 보도됨에도, 부모의 스마트폰 중독과 양육태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 스마트폰 중독이 '일상생활장애', '금단', '가상세계지향', '내성' 등의 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을 볼 때,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경우 가족구성원과의 일상적인 대화나 상호작용방식에 심각한 영향 줄 수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런데, 부모의 스마트폰 중독정도와 양육관련 변인 간의 관계는 상호적일 수 있다. 부모가 스마트기기에 중독됨으로 인해 자녀양육에 소홀해지고, 무관심해질 수 있지만, 양육에 별 관심이 없거나, 자녀 양육에 피로감과 어려움을 느끼는 부모들이 스마트폰에 더 쉽게 빠져들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 중독에 비하여 양육태도는 오랜 시간과 경험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임을 살펴볼 때,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연구는 현재 거의 없다.

중독수준이 높지 않은 잠재적 위험군의 어머니라 하더라도, 부정적인 양육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볼 때(현은자 외, 2013),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스마트폰 중독수준과 양육태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기 쉬운 부모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스마트폰 몰입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특히 현실적으로 양육의 주체가 되는 어머니의 스마트폰에 대한 중독은 자녀에게 더욱 위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수준과 관련한 양육관련변인(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 및 개인변인(감각추구 성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더불어, 스마트폰 뿐 아니라, 아이패드, 갤럭시탭과 같은 태블릿 PC 또한 스마트폰과 거의 흡사한 기능을 가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독대상을 스마트기기로 확장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중독수준에 따른 양육태도는 어떠한가?
둘째,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중독수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는 어떠한가?
셋째, 어머니의 감각추구성향은 스마트기기 중독점수에 영향을 주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만 2-5세 영유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700부를 배포하여 410부(59%)가 회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와 관련된 양육변인을 다루기에, 주 양육자가 누구인가를 중요하게 보았다. 이에 자녀양육방식에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을 주 양육자로 보고, '어머니'를 주 양육자로 표기한 설문으로 분석 대상을 제한하였다. 이러한 설문은 340부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응답 성실도가 낮은 문항을 제외한 후, 29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291)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participants(N=291)

	구분	빈도(%)
연령대	25세 미만	3(1)
	25-30세 미만	17(5.8)
	30-35세 미만	93(32)
	35-40세 미만	127(43.6)
	40-45세 미만	44(12.1)
	45-50세 미만	3(1)
	50세 이상	4(1.3)
	계	291(100)
학력	고졸	119(40.9)
	대학교	161(55.3)
	대학원	8(2.7)
	무응답	2(0.6)
	계	291(100)
취업여부	미취업	161(55.3)
	취업	129(44.3)
	무응답	1(0.3)
	계	291(100)
가구소득	100-200만원	16(5.5)
	200-300만원	49(16.8)
	300-400만원	107(36.8)
	400만원 이상	61(21)
	500만원 이상	52(17.9)
	무응답	6(2)
	계	291(100)
자녀의 연령	1세	1(0.3)
	2세	41(14.1)
	3세	70(24.1)
	4세	51(17.5)
	5세	46(15.8)
	6세	59(20.3)
	7세	20(6.9)
	무응답	3(1)
	계	291(100)

2. 연구도구

가. 어머니 스마트기기 중독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서 사용한 “성인 스마트폰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5문항으로 ‘일상생활장애’(5문항)(예: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 사용한다고 가족 또는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가상세계 지향성’(2문항)(예: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금단’(4문항)(예:“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내성’(4문항) (예: “스마트론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으로 이루어져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이라는 용어를 ‘스마트기기’ 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독증상이 더욱 심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Cronbach’s a = .907 였다.

나. 양육태도

이정란(1998)이 사용한 양육태도 검사도구를 활용하였다. 이것은 Schaefer가 개발한 MBRI(Mar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를 이원영(1983)이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한 것이다. 이원영의 도구는 154개의 하위문항, 7가지 양육요인(애정적, 거부적, 어머니의 외향적 특성, 의존성 조장태도, 통제적 태도, 긍정적 평가태도, 어머니의 의존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정란(1998)은 이것을 두 개의 축으로 대별되는 4개의 하위요인(애정족, 거부적, 자율적, 통제적)으로 제한하여, 애정적(12문항), 거부적(12문항), 자율적(12문항), 통제적(12문항)태도의 총 4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도구는 양육태도를 효과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김은영, 1997; 장은정, 2001). 각 양육태도 유형별 신뢰도는 애정적 Cronbach‘s a = 724, 거부적 Cronbach’s a = 762, 자율적 Cronbach’s a = 724, 통제적 Cronbach’s a = 725 로 나타났다. 각 문항 당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양육태도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 양육스트레스

안지영(2001)이 사용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Crnic과 Greenberg (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를 번안한 것으로, 원문에서는 20문항으로 구성된 것을 안지영(2001)의 연구에서 18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5점 척도로써, 제시된 양육관련 사항이 ‘전혀 성가시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성가시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 = .887 로 나타났다.

라. 감각추구

이유빈(2012)이 사용한 감각추구성향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Zuckerman의 'Sensational Seeking Scale'의 문항을 간편화한 Hoyle, Stephenson, Palmgreen, Lorch와 Donohew의 'Brief Sensational Seeking Scale'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다. 또한, Zuckerman의 'Sensational Seeking Scale' 을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한 박윤창, 이미경, 윤진(1995)의 문항(60문항)을 일부 사용하여,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Brief Sensational Seeking Scale'은 Zuckerman의 감각추구성향에 대한 하위 4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가지 하위유형은 '스릴과 모험추구'(5문항)(예: '나는 무서운 공포영화를 좋아하는 편이다), '경험추구'(5문항)(예: '나는 낯선 장소를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탈억제'(5문항)(예: '나는 규율이나 법을 위반하는 경우라도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원한다'), '권태에 대한 민감성'(5문항)(예: '나는 처음에 흥미로웠던 일이라도 조금만 지나면 쉽게 흥미를 잃어버린다')이다. 하위유형별 신뢰도는 '스릴과 모험추구' Cronbach's α = .757, '경험추구' Cronbach's α = .723, '탈억제' Cronbach's α = .700, '권태에 대한 민감성' Cronbach's α = .659 였으며, 전체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45 로 나타났다. 5점 척도로써,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3. 연구절차

가.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의 설문지 배포 및 회수기간은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였다. 참여기관은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 12개원이었으며, 연구자가 직접 전화를 하여 연구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 참여가 가능한 곳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관의 기관장을 통해 설문지를 전달 후, 기관에서 학부모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나.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18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 2 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어머니 스마트기기 중독수준에 따른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를 파악하기 위하여, 스마트기기 중독 점수를 독립변인으로,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를 결과변인으로 하여 ANOVA 및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상대적인 중독수준에 따라 관련변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탐색하기 위하여, 어머니 스마트기기 중독 점수를 3수준으로 분류하였다. 어머니 스마트기기 중독 원점수를 Z점수로 표준화한 후,

Z≤-1은 1수준, -1<Z≤+1는 2수준, Z>+1 은 3수준으로 분류하였다. <표 2>는 각 수준에 따른 빈도와 평균 및 표준편차가 나타나 있다. 1수준은 하위 16.5%(N=48), 2수준은 하위 84.2%, 즉 67.7%(N=197)에 해당하였으며, 3수준은 상위 15.8%(N=46)로 나타났다. 1수준은 '평균범위 이하'의 그룹으로 조사대상자 중 가장 낮은 스마트기기 중독수준에 속하는 그룹, 2수준은 '평균범위'에 속하는 그룹으로 조사대상자 중 일반적인 정도의 스마트기기 중독 수준을 보이는 그룹, 3수준은 '평균범위 이상'으로 조사대상자에 속한 대다수의 어머니들보다 높은 스마트기기 중독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중독수준'은 중독으로 진단된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기기 중독검사'에서 받은 점수의 높낮이를 의미한다. 이것은 중독되지 않은 일반 집단의 스마트 기기의 과몰입된 정도와 양육변인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중독 예방적 차원의 의의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연구문제 3의 분석은 감각추구성향의 하위요인을 예측변인으로,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중독 원점수를 결과변인으로 지정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어머니 스마트기기 중독수준(*N=291*)
<Table 2> Mothers' smart-device addiction levels(*N=291*)

스마트 기기중독수준	빈도(%)	평균	표준편차	Z점수
1수준 (평균범위 이하)	48(16.5)	1.07	.08	Z ≤-1
2수준 (평균범위)	197(67.7)	1.77	.34	-1< Z ≤+1
3수준 (평균범위 이상)	46(15.8)	2.90	.30	Z >+1

Ⅲ. 연구 결과

1. 각 변인의 기술통계,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 및 어머니의 배경변인에 따른 스마트기기 중독 점수

가. 각 변인의 기술통계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어머니 스마트기기 중독점수의 평균은 1.8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양육태도는 애정적, 자율적, 통제적, 거부적 양육태도의 순으로 나타나, 애정적인 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N=291*)
<Table 3>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variables(*N=291*)

	빈도	평균	표준편차
스마트기기 중독점수	291	1.84	.61
애정적 양육태도	291	3.93	.42
자율적 양육태도	291	3.51	.37
거부적 양육태도	291	2.64	.46
통제적 양육태도	291	3.40	.46
양육스트레스	291	2.25	.54
감각추구	291	2.19	.52

나. 어머니 스마트기기 중독과 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 감각추구와의 상관관계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중독점수와 애정적, 자율적, 통제적, 거부적 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 감각추구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어머니 스마트 기기 중독 수준은 애정적, 자율적 양육태도와 부적 상관을, 거부적 양육태도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통제적 양육태도와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양육스트레스, 감각추구와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표 4>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N=291*)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N=291*)

변인	애정적	자율적	거부적	통제적	양육 스트레스	감각추구
스마트기기 중독	-.274***	-.183**	.315***	.089	.255***	.226***

** $p < .01$, *** $p < .001$

다. 어머니의 배경변인에 따른 스마트기기 중독점수의 차이

어머니의 배경변인에 따른 스마트기기 중독 점수를 알아보았다. <표 5>는 어머니의 연령, 학력, 취업, 가구소득, 자녀의 연령 등에 따른 스마트기기 중독점수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다. 어머니의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미취업일수록,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스마트기기 중독점수의 평균이 높았다. 가구소득은 100-200만원인 경우 스마트기기 중독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점차 낮아지다가 400만원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연령, 학력, 취업여부, 가구소득, 자녀의 연령을 독립변수로, 어머니 스마트기기 중독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일원변량분석(ANOVA) 및 t-test를 각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연령

에 따라 스마트기기 중독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3,286) = 4.42, p < .01). 사후검증(Scheffe test)을 실시한 결과, '30세 미만'의 어머니가 '35-40세 미만'(p < .05), '40세 이상'(p < .01)의 어머니들 보다 스마트기기 중독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들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학력(t = -270, p = .48), 취업여부(t = .561, p = .58), 가구소득(F(4,280) = .219, p = .93), 자녀의 연령(t = 921, p = .36)에 따른 어머니 스마트기기 중독점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5> 어머니의 배경변인에 따른 스마트기기 중독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N=291*)
<Table 5>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smart-device addiction by mothers' demographic variables(*N=291*)

	구분	빈도(%)	M	SD
연령대	30세 미만	20(6.8)	2.26	.77
	30-35세 미만	93(32)	1.88	.63
	35-40세 미만	127(43.6)	1.80	.59
	40세 이상	51(12.1)	1.70	.48
	계	291(100)		
학력	고졸	119(40.9)	1.80	.56
	대학교 이상	169(58)	1.86	.64
	계	288(99)		
취업여부	미취업	161(55.3)	1.85	.61
	취업	129(44.3)	1.81	.62
	계	290(99.7)		
가구소득	100-200만원	16(5.5)	1.91	.52
	200-300만원	49(16.8)	1.84	.60
	300-400만원	107(36.8)	1.81	.66
	400만원 이상	61(21)	1.84	.60
	500만원 이상	52(17.9)	1.89	.56
	계	285(98)		
자녀의 연령	0-3세	112(38.5)	1.88	.68
	4-7세	176(60.5)	1.81	.56
	계	288(99)		

2. 어머니 스마트기기 중독수준에 따른 양육태도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중독점수를 3수준으로 분류한 후 이를 독립변인으로, 애정적, 자

율적, 거부적, 통제적 양육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6>에 나타나 있다. 통제적 양육태도를 제외한 애정적, 자율적, 거부적 양육태도에서 어머니 스마트기기 중독수준에 따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중독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애정적, 자율적 양육태도는 낮았고, 거부적 양육태도는 높았다. 사후검증 실시결과, 애정적 양육태도는 스마트기기 중독수준이 가장 낮은 1수준 그룹이 2수준, 3수준 그룹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2수준 그룹도 3수준 그룹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자율적 양육태도는 어머니 스마트기기 중독 수준이 높은 그룹일수록 낮게 나타났고, 이 차이는 1수준과 3수준 그룹 간에 유의하였다. 거부적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중독 수준이 높은 그룹에서 높게 나타났다. 거부적 양육태도는 스마트기기 중독수준이 가장 높은 3수준 그룹에서 1수준, 2수준 그룹보다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어머니 스마트기기 중독수준에 따른 양육태도(*N=291*)
<Table 6> Parenting styles by mothers' smart-device addiction levels(*N=291*)

양육 태도	1수준a (평균범위 이하) (N=48)		2수준b (평균범위) (N=197)		3수준c (평균범위 이상) (N=46)		*F*	*P*	Scheffe
	M	SD	M	SD	M	SD			
애정적	4.14	.41	3.93	.40	3.74	.46	10.957***	.000	a>b** a>c*** b>c*
자율적	3.64	.39	3.51	.38	3.41	.30	4.766**	.009	a>c**
거부적	2.55	.42	2.61	.47	2.91	.41	9.598***	.000	a<c** b<c***
통제적	3.36	.53	3.43	.46	3.38	.37	.479	.620	

*$p < .05$, ** $p < .01$, *** $p < .001$

3. 어머니 스마트기기 중독수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스마트기기 중독 3수준을 독립변인으로, 양육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7>에 나타나있다.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중독 수준이 높아질수록 양육스트레스 평균도 높게 나타났다. 1수준 그룹에서 가장 낮은 평균을 보여주었고, 3수준 그룹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사후검증결과, 3수준 그룹은 1수준 그룹, 2수준 그룹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모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어머니 스마트기기 중독수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N=291*)
<Table 7> Parenting stress by mothers' smart-device addiction levels(*N=291*)

	1수준 (평균이하)a (N=48)		2수준b (평균범위) (N=197)		3수준c (평균범위 이상) (N=46)		*F*	*P*	Scheffe
	M	SD	M	SD	M	SD			
양육스트레스	2.16	.54	2.20	.52	2.25	.54	9.595	.000	a<c** b<c***

** $p < .01$, *** $p < .001$

4. 감각추구성향이 어머니 스마트기기 중독점수에 미치는 영향

감각추구의 하위요인인 '스릴과 모험추구', '경험추구', '탈억제', '권태에 대한 민감성'을 예측변인으로, 스마트폰 중독 점수를 결과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분산팽창지수(VIF)를 살펴본 결과 독립변인들의 VIF는 1.37에서 1.67사이로 나타났다. 분산팽창지수(VIF)는 10이상이 되면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8>은 감각추구 하위유형이 어머니 스마트기기 중독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 이 모형은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F(4, 286) = 9.758$, $p < .001$), 감각추구 하위요인의 전체설명력은 12%로 나타났다. '스릴과 모험추구'를 제외한 '경험추구' '탈억제' '권태에 대한 민감성'은 어머니 스마트기기 중독점수에 대한 유의한 예측변인이었다.

'탈억제'와 '권태에 대한 민감성' 은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중독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추구'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가운데 '탈억제'가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보여주었다(*Beta* = .237).

<표 8> 감각추구 하위유형이 어머니 스마트기기 중독점수에 미치는 영향(*N=291*)
<Table 8> The effects of sub-categories of sensational seeking trait to mothers' smart-device addiction(*N=291*)

독립변수	*B(SE)*	*β*	*t*	R^2	수정된 R^2
(상수)	1.208(.155)		7.786***	.120	.108
스릴과 모험추구	.033(.049)	.044	.657		
경험추구	-.138(.064)	-.152	-2.153*		

탈억제	.237(.068)	.245	3.494**	.120	.108
권태에 대한 민감성	.186(.062)	.195	2.996**		

*p <.05, ** p <.01, *** p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중독수준에 따른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와, 감각추구성향이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중독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중독수준에 따라 애정적, 자율적, 거부적 양육태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중독수준이 높은 그룹일수록, 애정적, 자율적 양육태도는 낮게 나타나고, 거부적 양육태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족의사소통방식에 문제를 경험하며, 가정에 대한 애정, 가족관계 등이 낮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김기리, 이선정, 신효식, 2011; 안복모, 2003). 특히 애정적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중독 수준간의 모든 차이가 유의하였는데, 이것은 애정적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중독수준에 매우 민감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중독수준이 높은 그룹일수록 거부적 양육태도는 순차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중독수준이 2수준(평균범위)에서 3수준(평균범위 이상)으로 올라갈 때,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 애정적 양육태도가 모든 수준에서 민감하게 차이나는 것과 달리 거부적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중독 수준이 일정수준보다 높을 때 거부적 양육태도가 더욱 의미 있게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중독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에서 자녀에게 따뜻하고 관심어린 양육이 적으며, 자녀에게 관심이 없거나 쌀쌀맞게 대하는 양육태도가 높게 관찰되는 것은, 돌봄과 보살핌을 받기 위해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영유아기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중독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양육스트레스는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은자 외(201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1수준, 2수준 간의 차이보다는 3수준과 다른 수준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을 고려하면, 스마트기기 중독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일 때(본 연구에서는 '평균범위 이상') 양육스트레스가 의미 있게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들이 스마트기기에 몰입하는 그룹일수록 자녀양육을 성가시거나 귀찮고 짜증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며, 대인관계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비슷한 맥락이다(황경혜 외, 2012). 더불어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다사용과 연관이 있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류미향 2014; 박소영, 문혁준, 2015),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중독과 연관되는 것 뿐 아니라, 자녀의 스마트기기 중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임을 암시한다.

세 번째, 어머니의 감각추구성향은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중독점수에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새롭고 강렬한 자극을 추구하는 어머니일수록 스마트기기에 몰입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하며, 감각추구 성향이 스마트기기 중독 혹은 인터넷 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연정, 2014; 이정아, 2014; 정경호, 2014; Lin & Tsai, 2002). 특히, '스릴과 모험추구'를 제외한 감각추구 하위 변인은 모두 스마트기기 중독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탈억제', '권태에 대한 민감성'은 어머니 스마트기기 중독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경험추구'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권태에 대한 민감성'이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이정아, 2014)와 일치하며, '새로운 경험추구'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엄주리, 2014)와 다른 맥락이고,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신연섭, 2012; 정경호, 2014), 경험추구와 스마트폰 중독 간에 아무런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못한 연구결과(이정아, 2014)와 비슷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스릴과 모험을 추구하기 위해 스마트기기를 중독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거나 자신의 권태로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스마트기기를 중독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감각추구 하위요인 중에서도 '탈억제'가 어머니 스마트기기 중독수준을 예측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으며, 권태에 대한 민감성이 그 뒤를 따랐다. 억제된 상태는 사회적 혹은 대중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충동이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고, 탈억제된 상태는 타인의 판단이나 평가를 염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관습을 무시한 상태로 볼 수 있는데(Lin & Tsai, 2002) 스마트 기기의 중독적인 사용을 통해 이러한 욕구를 채우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스마트기기는 자신의 손안에서 조작이 가능하므로,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원하는 자극을, 원하는 때에, 마음껏 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반복되는 일상의 권태로움 또한 해소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감각추구와 스마트기기 중독정도와의 관계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의 어려움과 연결될 수도 있다. 개인의 감각추구 성향은 생물학적인 기질 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받는다(Arnett, 1994; Zuckerman, 2002).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며 겪는 어려움, 예를 들면, 생리적 욕구에 24시간 민감하게 반응하며 보살펴야 하는 영아기 부모의 어려움(정미라, 김지원, 이영은, 2015), 자녀의 훈육 및 학습에 혼란을 겪는 유아기 부모의 어려움(배지희, 박은영, 박세진, 김은혜, 2012)은 양육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다.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개인은 비행에 빠질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안성호, 2010)을 고려하여 보면, 양육의 어려움을 느끼고, 양육스트레

스가 높은 어머니들 중에,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경우 스마트기기에 더욱 과몰입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해볼 수도 있다.

한편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새로운 감각적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나타내는 '경험추구'는 연구들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후속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것은 도구의 차이에서 일부 비롯된 것일 수 있다. 몇몇 연구에서는 경험추구를 '새로운 경험추구'와 '일탈적 경험추구'로 분류하였는데(예: 엄주리, 2014; 정경호, 2014 등), '경험추구'를 어떠한 개념으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어떠한 유형의 경험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또는 감각추구의 하위요인 중 '경험추구'를 보다 다른 시각으로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만일, 스마트기기에 몰입하는 방식이 아닌 보다 건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한다면, 이는 중독을 예방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중독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양육스트레스가 차이가 난다는 점, 특히 부정적 양육방식이 중독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중독이 영유아기 자녀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임을 보여준다. 특히 세 수준간의 스마트기기 중독점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이에 따라 양육관련 변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위험성을 반영하며, 스마트기기 중독에 대한 부모의 자기점검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어머니의 배경변인 중 연령만이 스마트기기 중독에 유의한 변인이었다. 특히 어머니의 연령이 30대 이하인 경우 35세 이상의 연령대보다 스마트기기 중독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비교적 젊은 어머니들, 특히 20대의 어머니들을 중점으로 스마트기기 중독 예방교육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종합해보면, 스마트기기 중독에 취약한 개인적 변인(예: 높은 감각추구성향, 20대)을 지니고, 이것이 특정 스트레스 상황(예: 양육스트레스, 권태로운 생활)에 마주하게 되면 중독될 위험성이 더욱 높아질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이나 일반성인과 구분되는, 부모역할에 초점을 둔 부모대상의 스마트기기 중독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스마트기기 중독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양육관련 변인 및 개인변인의 유형을 파악하고, 변인의 다양한 수준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차별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부모들은 스마트기기의 바른 사용법을 인식하고, 자신의 스마트기기 사용이 자녀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부모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양육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영유아기 자녀에게 심각한 사회, 정서적 발달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닫고 양육의 가치와, 양육에서 오는 즐거움과 보람을 다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상의 권태로움에서 벗어나 스마트기기 외에 건전한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스마트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기기 중독군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어머니 스마트기기 중독점수의 평균은 1.84로 낮았다. 3수준에 속한 그룹의 평균은 2.90으로 중앙치를 넘어가는 값이라 하더라도 '중독되었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상대적으로 중독점수가 높은 그룹에서 부정적 양육태도와 높은 양육스트레스가 관찰되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에서 중독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부모와(예: 임상적으로 '중독'을 진단받은 집단), 그렇지 않은 부모 간의 관련변인 비교가 수행된다면 보다 심화된 자료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마트기기 중독수준과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해석하는 데 유의점이 따른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본 연구에서의 스마트기기 중독수준과 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는 인과설정이 아닌 관련변인 간의 설정이다. 종단연구를 통해, 스마트기기의 중독과 부모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를 탐색해보고, 부모의 스마트기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상황적, 개인적 요소들을 탐구해 보아야 한다. 더불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사용양상 및 개인적 변인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사용하게 되는 순간, 사용하는 시간의 정도, 사용하는 컨텐츠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와 중독의 연관성을 탐색하여, 어느 정도의 사용시간이 위험한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감각추구와 같이 개인적으로 중독에 취약한 어머니들의 특징과 관련변인을 파악한다면 어머니 스마트기기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민일보(2014.4.15). 게임중독, 아동학대...또, 아이들이 죽어갔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233820&code=11131100에서 2015. 11. 30. 인출.

(Translated in English) Choi, S.J.(April 15, 2014). Game addiction, Child abuse...Children are dying. The kukmin Ilbo. Retrieved November 30, 2015, from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233820&code=11131100

김기리·이선정·신효식(201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가족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0(4), 187-203.

(Translated in English) Kim, K.R., Lee, S.J., & Shin, H.S.(2011). The effects of Internet-addiction on adolescents' family communication.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ciation*, 20(4), 187-203.

김대용·정규석(201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 부부친밀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1(4), 267-295.

(Translated in English) Kim, D.Y., & Jung, K.S.(2015). The effect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on their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marital intimacy. *Social Science Research*, 31(4), 267-295.

김미숙(2008).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비교연구 -내국인과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Translated in English) Kim, M.S.(2008). Comparative study on stress that mothers with infants have in raising them : Focused on native and immigrant mother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Sungkyul University.

김미숙, 문혁준(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8), 25-35.

(Translated in English) Kim, M.S., & Moon, H.J.(2005).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on parenting behaviors in mother with young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8), 25-35.

김민석·문혁준(2015).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실태 분석 및 부모 관련 변인 연구. **인간발달연구**, 22(1), 77-99.

(Translated in English) Kim, M.S., & Moon, H.J.(2015). A study on parental influences and analysis of young children's smart-phone usage.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22(1), 77-99.

김병년(2013).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

문지, 13(4), 208-217.

(Translated in English) Kim, B.N.(2013). Effect of smart-phone addiction on youth's sociality development. *The Korea Contents Society*, 13(4), 208-217.

김연정(2014).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Translated in English) Kim, Y.J.(2014). Influence of sensation seeking on smart phone addict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regulation.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Myongji University.

김은영(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사고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Translated in English) Kim, E.Y.(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 and children′s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ability. Master degree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나용선(2013). 부모 양육태도가 유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 어린이집 이용 유아를 중심으로.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7(3), 32-53.

(Translated in English) Na, Y.S.(2013). The Effects of the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on the Smartphone Addiction of Small Childre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17(3), 32-53.

나재은(2014). 이용자 특성과 유형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과 공존질환 및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Translated in English) Na, J.E.(2014). Study on smart phone, comorbidity, and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users′ characteristics and styles. Master degree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노웅철·이선로(2005). 사용자의 자극추구 성향 특성이 온라인 게임 몰입과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5(1), 559-566.

(Translated in English) Noh, W.C., & Lee, S.R.(2005). Effects of sensation seeking tendency to online game immersion and loyalty. *Korea Society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Conference paper,* Vol. 2005. No. 1, 559-566.

류미향(2014).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실태 및 어머니 인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 탐구. **한국영유아보육학**, 86, 307-329.

(Translated in English) Ryu, M.H.(2014). A study of infants'/toddlers′ use of smartphones and their mothers′ perceptions on smartphone using.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86, 307-329.

미래창조과학부(2015). 무선통신 가입자 통계 2015년 5월말 기준.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2015). Statistics of wireless communication investigated in May, 2015.

박소영·문혁준(2015).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자군에 따른 사용실태 및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인간발달연구**, 22(3), 25-45.

(Translated in English) Park, S.Y., & Moon, H.j.(2015). Young children's use of smart-media and variables affecting overuse displayed by a smart media child user group.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22(3), 25-45.

박윤창·이미경·윤진(1995). 자극추구동기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 53-64.

(Translated in English) Park, Y.C., Lee, M.G., & Yoon, G.(1995). The impact of sensational seeking motivation on juvenile delinquency.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1), 53-64.

배지희, 박은영, 박세진, 김은혜(2012). 유아기 자녀의 교육 및 훈육에 대한 어머니들의 담론 분석.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6(1), 61-85.

(Translated in English) Bae, J.H., Park, E.Y., Park, S.J., & Kim, E.H.(2012). Mothers' discourse on young children's education and discipline. *Study of Welfar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16(1), 61-85.

신연섭(2012). 감각추구성향, 충동성, 공격성이 대학생의 휴대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Translated in English) Shin, Y.S.(2012). The influence of sensation seeking, impulsiveness and aggression on mobile phone addi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Master degree dissert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안복모(2003).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이 학교 및 가정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Translated in English) Ahn, B.M.(2003). The influence of Internet addiction to school and home adjustment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Master degree dissertation. Daejeon University.

안성호(2010). 스트레스상황에서 감각추구성과 불안민감성이 청소년의 비행성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Translated in English) Ahn, S.H.(2010). The effects of sensation seeking and anxiety sensitivity on the adolescent's delinquent tendency in stress level. Master degree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Translated in English) Ahn, J.Y.(2001).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al beliefs, efficacy, and stres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양돈규(2000).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인터넷 중독 경향 및 인터넷 관련 비행과의 상관성. **청소년학연구**, 7(2), 117-136.

(Translated in English) Yang, D.K.(2000). Th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sensational seeking, Internet addiction tendency, and Internet-related delinquen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7(2), 117-136.

엄주리(2014). 청소년의 자극추구성향 및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Translated in English) Eum, J.R.(2013). The effect of adolescent's sensation seeking and difference between Internet self-efficacy and self-efficacy on the smartphone addiction. Master degree dissertation. Sookmyung University.

이인학·최성열·송희원(201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구조관계. **아동교육**, 22(1), 69-81.

(Translated in English) Lee, I.H., Choi, S.Y., & Song, H.W.(2013).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mother's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2(1), 69-81.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성과의 관련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Translated in English) Rhee, W.Y.(1983). Relations between mothers' parenting beliefs and parenting styles, and children's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이유빈(2012). 감각추구성향, 자기효능감과 소구유형이 메시지 태도와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 폭음예방 캠페인 중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Translated in English) Rhee, Y.B.(2012). The effect of sensation seeking, self-efficacy and type of appeal on the message attitude and behavioral intention: Focused on the binge drinking campaign. Master degree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이정란(1998).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Translated in English) Lee, J.R.(1998). The effect of mother's rearing attitude on infant's adjustment is day-care center. Master degree dissertation. Myongji

University.

이정아(2014).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감각추구성향이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Translated in English) Lee, J.A.(2014).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and sensational seeking tendency on college students' smart-phone addiction. Master degree dissertation. Jeonju University.

장은정(200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Translated in English) Jang, E.J.(2000).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attitudes towards upbringing and infant's playfulness. Master degree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장혜진(2002). 휴대폰 중독적 사용집단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 자기개념, 애착, 자기통제력, 충동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Translated in English) Jang, H.J.(2002).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addictive using cellular phone. Master degree dis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정경호(2014).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대인불안이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Translated in English) Jung, G.H.(2014). Effects of sensational seeking and social anziety on smartphone overuse of adolescents. Master degree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정미라·김지원·이영은(2015). 12개월 첫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양육 어려움과 그 의미.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6(2), 255-281.

(Translated in English) Chung, M.R., Kim, J.W., & Lee, Y.E.(2015). The difficulties of first-time mother who nurtures her 12-month-old infant.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16(2), 255-281.

정지혜·박중규(2011). 청소년의 기질 및 성격, 방어기제가 휴대폰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1(1). 362.

(Translated in English) Jung, J.H., & Park, J.G.(2011). The influence of temperament, character, and defense mechanism on mobile phone overuse.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nference Paper*, Vol. 2011. No.1. 362.

조선일보(2010.3.3.). 방에는 썩은 분유...신생아 딸 굶겨죽인 게임중독부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03/2010030301310.html에서 2015. 11. 30. 인출.

(Translated in English) Chosun.com(March 3, 2010). Rotten milk in a room...game

addiction couple killed newborn baby. The Chosun Ilbo. Retrieved November 30, 2015, from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03/2010030301310.html

조수진(2012),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자존감, 충동성 및 사회성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Translated in English) Cho, S.J.(2012).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self-esteem, impulsiveness and sociability among high school students. Master degree dissertation. Sogang University.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스마트폰중독 진단척도 개발연구(NIA-IV-REF-11051)**.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Translated in English) Korea Information Society Agency(2011). *Development of Korean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youth and adults* (NIA-IV-REF-11051). Seoul: Korea Information Society Agency.

현은자·조메리명희·조경선·김태영(2013). 어머니의 스마트폰중독 수준,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관계연구. **유아교육연구**, 33(3), 207-225.

(Translated in English) Hyun, E.J., Cho, M.,M.,H., Cho, K.S., & Kim, T.Y.(2013). A study of relationships among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level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stres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3(3), 207-225.

황경혜·유양숙·조옥희(2012).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사용 정도에 따른 상지통증, 불안, 우울 및 대인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0), 365-375.

(Translated in English) Hwang, K.H., Yoo, Y.S., & Cho, O,H.(2012). Smartphone overuse and upper extremity pain, anxiety, depress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10), 365-375.

Abidin, R.R.(1990).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Arnett, J.(1994) Sensation seeking: A new conceptualization and a new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2), 289-296.*

Crnic, K.A. & Greenberg, M.T.(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5), 1628-1637.

Goldberg, I.(1996). *Internet addiction disorder.* Retrieved December 31, 2015, from http://www.psycom.net/iadcriteria.html

Griffiths, M.(1999). Internet addiction. *The Psychologist, 12*(5), 245-150. Cited from Korea Information Society Agency(2011). *Development of Korean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youth and adults(NIA-IV-REF-11051). Seoul: Korea Information Society Agency.

Lin, S.S. & Tsai, C.C.(2002). Sensation seeking and internet dependence of Taiwanese high school adolesc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8*(4), 411-426.

Young, K.S.(1998). *Caught in the net: How to recognize the signs of internet addiction--and a winning strategy for recovery.* John Wiley & Sons.

Zuckerman, M.(1979). *Sensation seeking: Beyond the optimal level of arousal.* New York: Hillsdale.

Zuckerman, M.(2002). Genetics of sensation seeking. In J. Benjamin, R. P. Epstein, & R. H. Belmaker (Eds.), *Molecular genetics and the human personality* (pp. 193-21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논문접수 : 2015년 12월 31일 / 수정본접수 : 2016년 2월 4일 / 게재승인 : 2016년 2월 26일

KCI